

“건강특별시, 서울시한의사회가 함께 합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우)0256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20(421호) / 전화(02)960-0811 / 전송(02)960-0813 / E-mail : seouloma@naver.com
사무처장 : 김석모 국장 : 김태준 부장 : 김윤기, 윤상환 과장 : 김승기 담당 : 윤덕영 / 홈페이지 : www.soma.or.kr

문서번호 서한의 제 452 호

시행일자 2018. 3. 13. (년)

경 유

수 신 분 회 장

참 조 사무국장

선 결			지 시		
접	일자	. .	결		
	시간	:	재		
수	번호		·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사항’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대한의-2018-03-0068 (2018. 3. 8)

3. 중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협조 요청(한약정책과-1052, 2018. 3. 7)’을 안내 받은 바, 첨부과 같이 본회에 알려왔습니다.

4. 따라서 동 사항을 각 분회로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식약처 업무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한의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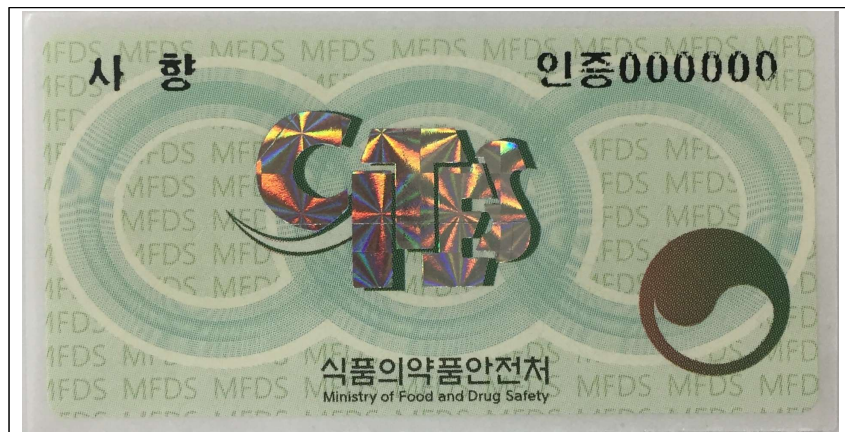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업무협조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약재인 ‘사향’은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사향’은 CITES(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품목으로, 「약사법」 제43조에 따라 수입시마다 식약처장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며, 한약재 검사기관의 통관검사 및 우리처(생약연구과) 교차검증을 거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수입되고 있습니다.
 - 수입된 ‘사향’은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한약규격품’으로 제조되어야만 유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판매단위별로 ‘CITES 인증증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사향 CITES 인증증지>

3. 하지만, 최근 사향을 불법으로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적발('18.3.6. 뉴시스 등)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향이 유통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모임 등을 통해 ‘공진단’을 공동제조하여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사향’은 조제용 또는 제조용으로 품목허가(또는 신고)받은 의약품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조하여 유통되는 ‘사향’에는 ‘CITES 인증증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취급권한이 없는 일반인이 구매할 수 없는 바,

- ‘사항’ 구입 시에는 CITES 인증증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바라며, 해당 증지가 부착되지 않은 ‘사항’을 구입하셨거나, 한의사, 한약사, 약사 등이 아닌 무자격자가 인터넷 모임 등을 통해 ‘공진단’을 제조·유통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 하셨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한약재GMP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한국한약유통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주무관 윤해석 연구관 김달환 한약정책과장 전결 2018. 3. 7. 김영우

협조자

시행 한약정책과-1052 (2018. 3. 7.)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 의료행정타운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362 팩스번호 043-719-3350 / medchem@kfda.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